

민주당 명운 걸린 ‘슈퍼워크’… 호남이 승부 가른다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시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권 향배를 가를 최대 승부처인 호남 표심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관련기사 8·19면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가 1%p대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의 선택이 최종 승부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호남권 경선이 치러지는 15일에는 초대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위원장도 선출돼 중앙당과 지역당의 새로운 지도체제가 차례로 윤곽을 드러낸다.

13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15일 호남권에 이어 16일 서울·경기권 순회경선을 진행한다. 마지막 권역별 경선을 마친 뒤 17일 대전에서 전국당원대회를 열어 새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당대표 선거에는 기호순으로 송영길·정청래·김민석 후보가 출마했다. 민주당은 지난 1일부터 총정권을 시작으로 부산·울산·경남, 제주·인천, 강원·대구·경북 등 4개 권역에서 순회경선을 진행했다. 현재까지 권리당원 누적 득표율은 김 후보가 46.01%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정 후보는 44.53%로 김 후보를 1.48%p 차로 바짝 뒤쫓고 있으며, 송 후보는 9.47%를 기록하고 있다.

득표수로는 김 후보 9만5821표, 정 후보 9만2735표로 두 후보의 격차가 3086표에 불과하다. 아직 투표자가 많은 호남권과 서울·경기권 권리당원이 100만명을 넘는 만큼 남은 경선 결과에 따라 현재 순위가 뒤바뀔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전체 권리당원의 30% 이상이 거주하는 호남은 이번 당대표 선거의 최대 분수령으로 꼽힌다. 호남권 순회경선은 15일 오후 1시 나주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리는 전남광주 합동연설회로 시작한다. 이어 오후 5시 원광대학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한 송영길·정청래·김민석 후보. (기호순)



새 지도부 17일 선출…최대 승부처 ‘호남 표심’ 주목
김민석 46.01%·정청래 44.53%…15일 나주·익산 경선
특별시장위원장도 발표…권향엽·조계원·안도걸 3파전

교 문화체육관에서 전북 합동연설회가 진행된다. 호남은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일 뿐만 아니라 주요 당내 경선 때마다 전체 당심의 흐름을 보여주는 상징성이 큰 지역이다. 김 후보와 정 후보 모두 호남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막판 조직력과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송 후보가 호남을 정치적 기반으로 두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송 후보가 호남에서 확보하는 득표 규모와 해당 표의 차순위 선택이 김 후보와 정 후보의 양자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당대표 선거에는 선호투표제가 적용된다. 유권자가 후보 3명을 선호하는 순서대로 선택하고, 1차 집계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최하위 후보를 제외한 뒤 해당 후보를 1순위로 선택한 표를 차순위 후보에게 이전해 최종 승자를 가르는 방식이다.

최종 결과에는 권리당원과 전국대의원투표를 합산한 당원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가 반영된다. 권역별 순회경선에서는 권리당원 투표 결과만 공개되

며, 전국대의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더한 최종 승자는 17일 전국당원대회에서 결정된다.

호남권 순회경선이 열리는 15일에는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당을 이끌 초대 위원장도 결정된다.

시장위원장 선거에는 기호 1번 권향엽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 기호 2번 조계원 의원(여수을), 기호 3번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출마해 3파전을 벌이고 있다.

전국대의원 투표는 정기당원대회 당일인 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실시된다. 당원대회는 15일 낮 12시 나주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다.

초대 시장위원장은 전남·광주 통합에 따라 새롭게 출범한 특별시장의 조직을 정비하고 중앙당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는다. 통합특별시의 주요 현안을 중앙 정치권에 반영하는 동시에 차기 지방선거를 지휘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역 정치권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한성숙 국무총리가 13일 전남광주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의 미수습 유해와 유류품 재수색 현장을 방문해 수습 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무안공항 재수색 지연…연내 재개항 불투명

한성숙 총리 “8월까지 유해 발굴 완료 어렵다”

후속절차도 밀려…유가족 만나 진상규명 약속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 추가 수색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무안 국제공항 재개항 시점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정부가 당초 목표로 잡았던 8월 말까지 수색을 마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연내 운항 재개는 사실상 쉽지 않을 전망이다. ▶관련기사 9면

한성숙 국무총리는 13일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들과 면담했다. 공항 내 분향소에 헌화한 뒤 유해 재수색 현장과 유류품 보관시설 등을 확인하고 유가족 50명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 자리에서 유가족들은 참사 발생 이후 1년8개월이 지났지만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특히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인력과 예산 지원, 조사 과정과 자료의 투명한 공개, 참사 수습 과정에 대한 국가 차원

의 사과 등을 촉구했다. 유해 수습 이후 장례 지원과 세금·연금 등 피해 유가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요구사항에 포함됐다.

한 총리는 “사고 조사가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돼 믿을 만한 결과가 나오도록 잘 살펴보겠다”며 진상 규명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밝혔다.

유가족이 참사 초기 유류품 처리 과정 등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항의하자 한 총리는 “최소화”고 사과하기도 했다. 수습 과정의 책임자 문책 요구에는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정리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관심이 쏠린 것은 재수색 일정이다. 한 총리는 간담회를 마친 뒤 8월 말까지 재수색을 끝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현재 수색은 지난 4월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12일 기준 828개 구역 가운데 724개 구역의 작업이 완료됐다. 진행률은 87.4%

다. 이 과정에서 유해 추정물 1620점과 유류품 851점이 추가로 확인됐다.

문제는 재수색이 끝난다고 곧바로 공항을 다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수색 종료 이후에도 유가족과 재개항 방안을 협의하고 로컬라이저 등 항행·안전시설을 정비해야 한다. 공항 운영 재개에 필요한 각종 점검과 준비 절차도 남아 있다.

당초에는 8월 말 수색을 마친 뒤 관련 절차를 압축해 연말까지 재개항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수색 일정이 뒤로 밀릴 경우 이후 절차를 서둘러도 올해 안에 운항을 재개하기는 빠듯하다.

무안공항 정상화는 지역의 다른 현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광주 민간공항 이전과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가 대표적이다. 광주 민간공항 이전 논의가 무안공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만큼 공항 정상화가 늦어지면 군 공항 이전 논의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2면서 계속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이재명 대통령 “선택적 모병제 도입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 우리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시키는 국방 개혁을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속적인 저출생 때문

에 현재 같은 인력과 보병 중심의 비효율적 군 구조를 유지하는 건 가능하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국방의 주역인 청년들이 미래에 더 나은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 공급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부동산 거품도 다는 방지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특정 국가처럼 ‘잃어버린 20년, 30년’ 현상이 도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뛰어라 전남광주 빛나라장성!
통합의시대. 더큰미래로!

제1회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2026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장성군 옐로우시티스타디움 외 종목별 경기장

2026. 9. 12. **토** ~ 14. **월**

생활체육대축전

2026. 10. 15. **목** ~ 16. **금**

장애인생활체육대회